

19. 에스테르기

에스테르기는 에스테르라는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유대 민족이 큰 위기를 모면하는 소설이며, 유다인을 절멸시키려 푸르 곧 주사위를 던진 것에서 유래한 푸림절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벤야민 지파의 모르도카이는 바빌론 유배 때 포로로 잡혀왔다가 페르시아제국 시대에 왕궁에서 봉직하게 됩니다. 그는 사촌 에스테르를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잔치를 열어 왕국의 부와 권세를 자랑했으며, 왕비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하였으나(미드라쉬에 보면 왕은 왕비가 벌거벗은 채 왕관만 쓰고 나올 것을 명함) 왕비에게 거절당하자 왕비를 폐위시키고, 모르도카이의 사촌이며 양녀인 에스테르를 새 왕비로 뽑습니다.

임금의 대신 중 마케도니아 사람 하만은 임금의 총애를 받았는데,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르도카이는 하느님께만 무릎을 꿇고 절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자 하만은 앙심을 품고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합니다. 하만은 주사위를 던져 그 날짜를 정하고 임금의 허락을 받아 칙서를 방방곡곡에 보냅니다. 모르도카이는 이 사실을 에스테르에게 전하고 유다인들을 불행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맡깁니다.

당시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께 나아가면 왕비일지라도 사형이었는데, 에스테르는 단식과 기도를 올린 후 잔치에 참가하여 왕에게 유대인의 멸망위기를 전하고 그 음모를 꾸민 이가 하만임을 고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고,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살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유다인들은 전화위복을 가져온 이날을 푸림절이라 하여 축제를 지냅니다.

오늘날 이 축제일에 유다인들은 최소 두 사람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고 한 명 이상의 친구에게 두 가지 이상의 음식재료를 선물로 보내며 아이들은 평소 동경해 왔던 인물로 마음껏 분장하고 각종 페스티발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엄숙해야 할 회당 예배 중에 아이들이 마음껏 소음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날인 이날은 종교 축제라기보다는 세속 축제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스테르기가 종교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학살 및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구약성경에 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배살이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과 종교 전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스테르의 굳은 믿음과 민족사랑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책임입니다.